

## 이코노텍스트로서의 어린이 그림책 번역: 삽화의 현지화를 중심으로\*

김도훈  
(부산외국어대)

### 1. 서론

번역학과 아동문학은 둘 다 역사가 짧은 신생 학문이지만 국제화의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Tabbert 2002: 303). 또한 번역학이 연구의 관심을 아동문학에도 두기 시작하면서 근래에 들어 아동문학과 번역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신지선 2005: 9).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수의 서양 아동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어린이 그림책<sup>1)</sup>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번역학에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어린이 그림책’의 대상 독자 연령대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본고의 분석 자료는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며, 팝업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도 여타 아동문학 유형 중에서도 어린이 그림책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텍스트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고 있다.

물론 어린이 그림책의 번역 및 이를 대상으로 한 번역학 연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가독성<sup>2)</sup> 및 가화성<sup>3)</sup>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바로 어린이 그림책의 이코노텍스트<sup>4)</sup>로서의 특수성이다. 특히, 어린이 그림책 번역의 실무 및 이론에서 글과 삽화의 관계, 그리고 삽화 번역의 현지화 가능성 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책의 경우 글과 삽화가 어우러져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 글의 번역은 물론 글과 삽화와의 관계 재설정이나 부연 설명 등을 통한 보상, 더 나아가서는 삽화의 현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학문적 연구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글과 삽화가 대체적으로 지시적 보완적 관계이며, 번역 과정에서 글과 삽화의 관계가 연결 고리나 상호보완성을 잃을 경우 불완전한 텍스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번역 등가<sup>5)</sup> 구현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린이 그림책의 이코노텍스트적인 특수성을 인식하고 글과 삽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삽화 번역의 문제점을 삽화 현지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글과 삽화의 관계를 규명하고 삽화 현지화의 필요성을 무시한 경우 발생하는 번역에서의 문제점과 성공적인 삽화 현지화를 통한 번역 등가 구현의 가능성을 실제 번역 사례를 토

2) ‘가독성’은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가리키며, 독이성, 이독성 등의 용어와 대동소이하다(성승은 2011: 75).

3) ‘가화성’은 ‘말로 하기 좋은 상태나 정도’를 의미하며, 음성으로 표현되어 귀로 듣게 되는 경우 번역시 ‘소리 내어 표현하기 좋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신지선 2005: 68).

4) 이코노텍스트(iconotext)란 글과 그림이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텍스트를 가리킨다(현은자 외 2004: 78).

5) 본고에서는 ‘등가’를 ‘수용자 반응 차원의 등가’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이더와 테버(Nida and Taber 1982: 23)는 출발어 텍스트를 읽은 독자와 번역된 도착어 텍스트를 읽은 독자가 보이는 반응을 고려해 번역을 해야 하며 번역의 핵심은 그 효과 또는 반응에 있다고 주장했다. 맥클레이(Macaulay 1994: 162)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수용자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한다.

대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 2. 어린이 그림책의 이코노텍스트성

어린이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함께 사용되며 주로 삽화가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실려 있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이며 글과 삽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현은자·김세희 2005: 16; Horning 1997: 88). 어린이 그림책의 종류는 실로 많으며, 토이북, 팝업북 등도 포함되며 사실과 허구의 조합인 경우도 있고, 하나 또는 복수의 이야기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고 경계를 허무는 경우도 있으며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의 조합 또는 서로 다른 문체 및 묘사 방법을 통해 문학적 통념을 무시하고 극단으로 치달아 파편화(fragmentation), 비신성화(decanonization), 풍자(irony), 혼성화(hybridization)를 가능케 하며 독자로 하여금 연기(act)를 하도록 하고 참여를 유발할 수도 있다(Lewis 2001: 45).

상기와 같은 다양성 및 다면성에도 불구하고, 삽화본을 제외한다면 어린이 그림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는 글과 삽화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야기 전개에 있어 때로는 삽화가, 때로는 글이 우선하기도 한다. 물론 그 사이를 매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만드는 일은 독자의 몫이다.

중요한 점은, 글과 삽화의 관계가 무엇이든 삽화는 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장소, 문화, 사회, 인물 및 그들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삽화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물들이 차지해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삽화는 글을 보충하기도, 때로는 확대하기도 한다. 글과 삽화의 관계는 상호활력제공(inter-animation), 유연성(flexibility), 복잡성(complexity)으로도 설명된다(Lewis 2001: 31). 예를 들어, 19세기 삽화 작가를 대표하는 구스타프 도레(Gustave Dore)의 실락원 삽화는 낙원에서 추방당한 천사장 루시퍼, 그리고 그의 간교한 속임수에 죄를 짓게 되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 그리고 실락원의 의미를 글과 함께, 그리고 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상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추가적인 상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매우 복잡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Paradise Lost(실락원)』에 나오는 구스타브 도레(Gustave Dore)의 삽화



이코노텍스트 중에서도 최초의 어린이 그림책은 1965년 출판된 아모스(AMOS)의 『Orbis Sensualium Pictus(세계의 그림)』이며, 이 작품의 경우 교육적 목적을 지녔으며 글과 삽화의 상호보완성을 통해 텍스트가 완성되고 있다(신명호 1994: 15). 이 책은 어린이 그림책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후의 그림책은 대다수가 이를 따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가족, 삶, 죽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삽화와 글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 그림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언어 예술과 회화 예술의 조화물이다(이상금 옮김 1990: 44-45). 이러한 이코노텍스트의 경우 글과 삽화가 각각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단위이며 이 양자가 가지는 ‘도상성(icon)<sup>6)</sup>’과 ‘자의성(arbitrariness)<sup>7)</sup>’의 중화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장르로서 ‘제3의 텍스트’이다(박

6) ‘도상성’이란 ‘이미지’ 또는 ‘상(象)’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만화에서는 생김새만 보고도 주인공과 조연을 단번에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또는 시청자)는 쉽게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7) ‘자의성’이란 언어 기호의 형식과 의미의 관계가 대자연이나 신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고 쓰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일우 1995: 387).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글과 삽화는 차지하는 지면에 관계없이 주로 대등한 비중으로 조합되어 이코노텍스트를 이룬다는 점이다(김요섭 옮김 1996: 155). 다시 말해 삽화본에서는 글이 중심이 되고 삽화는 단순 보충 역할만을 하는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그림책과 같은 이코노텍스트 장르에서는 어느 한쪽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계성을 상실한다면 텍스트로서의 완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글과 삽화는 독립적이지만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두 주체 모두 텍스트를 완성하는 필수 단위이다(정병규 2004: 158).

어린이 그림책이라는 이코노텍스트의 경우, 삽화는 글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특히 세상 지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물질적 대상의 외양 또는 문맥에 대한 정보까지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반대로 글의 경우 삽화가 나타낼 수 없는 인과 관계, 중심적인 내용과 외곽적인 내용의 구분, 가능성과 현실의 관계를 나타낸다(김서정 옮김 2001: 432). 따라서 삽화가 없거나 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어린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텍스트 이해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는 글과 삽화의 상호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현은자 외 2004: 15). 때로는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번역이라면 출발어 텍스트를 읽은 어린이 독자와 도착어 텍스트를 읽은 어린이 독자의 반응이 상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코노텍스트의 읽기가 동시 다중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에 기인한다.

글과 삽화의 관계는 기호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림책 안에 있는 삽화는 현실 또는 비현실 세상의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글은 합의에 기초해 있으며 글과 삽화 사이에는 주로 지시적 관계가 존재한다.<sup>8)</sup> 그림책에서 글은 삽화를 가리키고 삽화는 글을 가리키며 이러한 지시적인 관계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텍스트를 완성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오랜 기간 사랑받는 어린이 그림책의 경우 뛰어난 글과 훌륭한 삽화보다는 글과 삽화의 유기성 및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보인다(Horning 1997: 89-90). 이렇듯 어린이 그림책이란 글과 삽화가 조합하여 이야

8) 이와는 반대로 글과 그림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Nikolajeva 2006 참조).

기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 또한 글과 삽화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합되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그림책 번역의 평가와 연구에 있어서도 삽화, 그리고 글과 삽화의 상호작용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린이 그림책에서 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삽화 외에도 여러 시각적 장치가 등장한다. 문장부호나 대문자 사용도 이러한 시각적 장치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글자 모양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그림책의 가독성 및 가화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린이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 연구에 있어 삽화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번역과 삽화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로 하겠다. 어린이 그림책에서 삽화가 없다면 이는 영상이 없는 영화나 마찬가지로 글과 삽화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텍스트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텍스트를 읽고 보는 흥미가 감소하거나 혼란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삽화의 현지화

전술했듯 어린이 그림책의 평가 기준은 글과 삽화의 관계의 적절성 및 조화에 있으며, 번역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글을 번역한 후에는 삽화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삽화의 현지화도 보상 메커니즘으로 동원되어 수용자 반응의 증가를 구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번역학자 베누티(Venuti 1995: 116)는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 요소를 도착어권에 적응(adjust)시키는 것을 현지화(domestication)<sup>9)</sup>라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도착어 문화 및 언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수용(accommodation)으로 규정했다. 현지화의 목적은 수용자 반응의 증가 구현이어야 한다. 물론 번역사가 출

9) ‘자국화’로도 불리며, Venuti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은 번역을 거치면서 타국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되거나 ‘귀화(naturalize)’되어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결국 ‘투명한 번역(transparent translation)’이 제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Luther나 Nida 등은 타국화보다는 현지화의 가치에 비중을 두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접근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발어텍스트의 흔적을 충분히 보존하고 문화적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공현존(copresence)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현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국적’이라는 반응을 넘어 이해용이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유도한다면 번역의 기초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삽화 현지화의 예로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카탈로니아어 번역본(Gutiérrez 옮김 2002/Anglada 삽화)을 꼽을 수 있는데, 아래 삽화만 보더라도 매드헤터의 그로테스크하고 광대 같은 모습<sup>10)</sup>이 19세기 카탈로니아 신사로, 주전자는 카탈로니아에서 익숙한 모양으로, 영국의 오두막 모습은 카탈로니아의 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에 나오는 테니얼(John Tenniel)의 삽화



10) 필자의 주관이 개입된 판단임을 인정하지만, 머리 크기와 전체적인 비율 및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특히 전형적인 영국 신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인다.

『Alicia en el pais de las maravillas』에 나오는 앙글라다(Lola Anglada)의 삽화



핀란드어 번역본 『Liisa, Liisa ja Alice』(Oittinen 옮김 1997)에서도 역시 삽화 현지화가 시도되었으며 영국의 풍경은 핀란드 풍경으로 바뀌었으며 곳곳에서 핀란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나무가 삽입되어 있다(Oittinen 2000: 134-140).

이러한 노력을 통해 캐럴(Carroll)의 글은 서로 다른 삽화 작가의 삽화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인물들의 관계는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위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번역에 있어 제한적이거나 삽화의 현지화를 통해 번역된 글과 그림의 조화를 찾아 이코노텍스트가 제대로 형성된 경우와 현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착어 독자의 수용성을 저해하거나 텍스트의 완전성이 결핍된 경우를 살펴보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3.1. 삽화를 부분적으로 현지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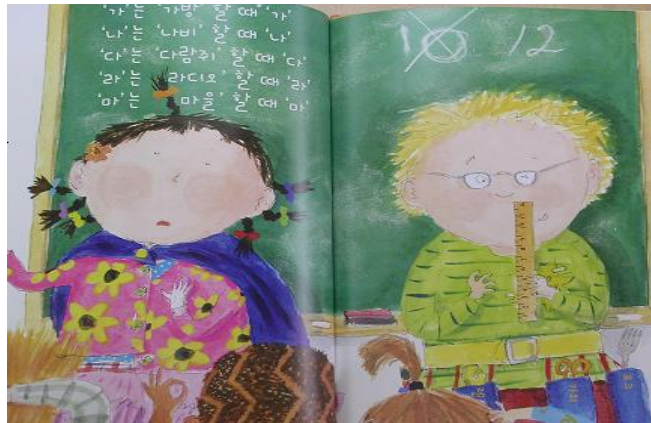
아래 (1a)는 커티스(Curtis)의 『I'm Gonna Like Me』에 사용된 삽화이고 (1b)는 서애경의 번역서 『나는 내가 좋아』에 사용된 삽화이다. 부분적으로 현지화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1a) 출발어 텍스트 삽화(Curtis 2002: 10-11)



상기 출발어의 삽화가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b) 도착어 텍스트 삽화(서애경 옮김 2005: 10-11)



출발어 텍스트 삽화는 주인공들이 이미 글자와 숫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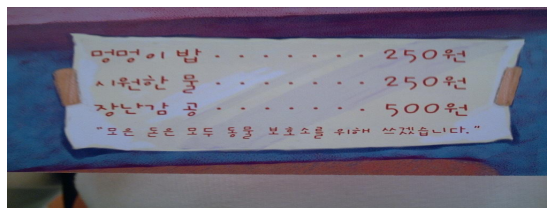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칠판 앞으로 불러나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글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출발어 텍스트에서 “A(a) is for antibiotic, B(b) is for ballroom, C(c) is for cape, D(d) is for dive, [...]”라고 칠판에 적혀있는 삽화 내의 글을 도착어 텍스트 삽화에서는 “‘가’는 ‘가방’할 때 ‘가’, ‘나’는 ‘나비’할 때 ‘나’, ‘다’는 ‘다람쥐’할 때 ‘다’, [...]”로 옮겼다. 다시 말해, “A, B, C” 등의 알파벳이 포함된 단어 설명을 도착어 문화에 맞게 현지화하여 “가, 나, 다” 등을 사용하여 단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함으로써 글과 그림의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돕고 있다.

아래 (2a)는 다이어(Dyer)의 『Incredible You!』에 사용된 삽화이고, (2b)는 정미영의 한글 번역서 『나는 할 수 있어!』에 사용된 삽화이다.

(2a) 출발어 텍스트 삽화(Dyer 2005: 3)



(2b) 도착어 텍스트 삽화(정미영 옮김 2006: 4)



위의 삽화는 공원에 있는 가게의 작은 판매대에 적혀 있는 가격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2a)의 상품 이름을 (2b)에서 번역해서 한국어로 바꾸었으며, 특히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2b)에서 사용된 ‘멍멍이’라는 표현은 의성어로 만들어진 어휘로 가화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화폐 단위를 원화로 바꾸어 아동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가독성을 높였다.

아래 (3a)는 아르텔(Artell)의 작품 『Petite Rouge』에 사용된 삽화이고, (3b)는 한강의 한글 번역서 『절대로 잡아먹히지 않는 빨간 모자 이야기』에 사용된 삽화이다.

(3a) 출발어 삽화(Artell 2003: 20)



상기 출발어의 삽화가 어떤 방식으로 도착어 텍스트에서 현지화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b) 도착어 삽화(한강 옮김 2003: 20)



(3)의 작품은 『빨간 모자』를 패러디한 어린이 그림책으로 4-7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자층이 어릴수록 작품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

다.11) (3b)에 번역되어 나오는 ‘무지 매운 빨간 소스’는 전체 텍스트 전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늙은 악어 클로드가 ‘무지 매운 빨간 소스’를 뿌린 소시지를 빨간 모자 꼬마 오리로 착각해서 먹고 ‘무지 매운맛’을 본 후로 두 번 다시 늙을 지나는 꼬마 오리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3b)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3a) ‘PEPP[ER]’가 ‘고추+마늘’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번역사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아래 (4b) 또한 흥미로운 삽화 현지화의 예라 할 수 있다.

(4a) 출발어 텍스트 삽화(Curtis 2002: 18-19)



(4b) 도착어 텍스트 삽화(서애경 2005: 18-19)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장면이다. 출발어 텍스트 삽화의 ‘MEDAL of Honesty’와 ‘MEDAL of Best Friend’를 각각 도착어 텍스트

11) 글자와 그림(삽화)의 비율, 그리고 의존성 등에 있어 그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트 삽화에서는 ‘정직상’과 ‘우정상’으로 번역했다. 그 외의 상들도 도착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

상기 출발어 삽화와 도착어 삽화를 비교하면서 삽화의 현지화를 통해 증가 구현에 다가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전술했듯 이코노텍스트의 읽기는 동시 다중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글과 삽화가 하나의 기호로 동기화되면서 해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글을 번역 후 삽화 또한 번역된 글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이코노텍스트의 완전성을 복구해야 새로운 도착어 이코노텍스트가 완성된다. 이를 고려할 때 상기 삽화 현지화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 삽화 현지화의 경우에도 삽화의 일부분, 그것도 삽화에 포함되어 있는 글에 국한하여 현지화가 진행된 점이다. 베누티는 현지화란 번역에 있어 도착어의 문화적 가치를 첨가하는 것이라 말한다(Venuti 1995: 49). 같은 맥락에서 체스터만 외(Chesterman 외 2000: 374)는 현지화란 출발어를 도착어의 특수성과 문화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라 말한다. 어린이 그림책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 및 현지화 시도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한 코프린트(co-print) 관행으로 인해 삽화 현지화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 보다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 3.2. 삽화를 현지화하지 않은 경우

베누티는 도착어 텍스트에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 및 문화적 이질성을 드러내는 타국화(foreignization) 번역도 필요하며, 이는 도착어 독자들의 이질적 독서 경험(alien reading experience)을 돕기 위해서라 말한다(Venuti 1995: 1-20). 하지만 어린이 그림책의 경우 이코노텍스트의 특성 때문이라도, 그리고 독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현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아래에서는 현지화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5) 출발어 · 도착어 텍스트 삽화(Wildsmith 1986: 3; 김정옥 옮김 1996: 3)



(5)의 경우 와일드스미스(Wildsmith)의 작품 『GOAT'S TRAIL』 및 김정옥의 번역 『산양을 따라갔어요』에 사용된 삽화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교실로 들어와서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다. 칠판에 적혀 있는 “A B C D E F G”와 과일모양의 그림 아래 ‘A’라고 적혀있는 내용에서 ‘과일’이 ‘Apple’임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출발어 독자는 알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출발어의 글과도 조화를 이루나 도착어 독자로서는 ‘A’가 도착어의 ‘사과’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독자층이 아동임을 고려할 때 친근감도 떨어지고 이해하기도 어렵다.<sup>12)</sup> 삽화의 현지화가 이루어진 (1b)의 예시와 대조적이다.

아래 (6)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가 묶여 있고 소 주인은 ‘BUTCHER(정육점)’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삽화인데, 소의 운명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도착어 독자로서는 ‘BUTCHER’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번역된 글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술했듯 어린이 그림책이 글과 삽화의 조화를 통해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메시지와 효과를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2) ‘이중 독자층’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읽어주는 어른’과 ‘듣고, 읽는 아이’ 모두 독자층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수용되어야 한다.

(6) 출발어·도착어 텍스트 삽화(Wildsmith 1986: 7; 김정옥 옮김 1996: 7)



아래 (7)은 고미(Gomi)의 작품 『The Crocodile and the Dentist』 및 이종화의 번역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에서 사용된 삽화이다. 이 책은 악어가 치과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치과 의사는 악어를 무서워한다는 내용이다.

(7) 출발어·도착어 텍스트 삽화(Gomi 1996: 5; 이종화 옮김 2003: 7)



(7)의 삽화는 악어가 치과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악어가 두려워하는 곳이 치과라는 사실을 출발어 독자는 간판에 쓰인 'Dental Office'를 보고 단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착어 독자는 악어가 치과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글의 중반부까지 읽고서야 알 수

있다.<sup>13)</sup>

이제 아래에서 마지막 삽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8) 출발어 · 도착어 텍스트 삽화(Sendak 1963/2002: 15-16; 강무홍 옮김 2002: 15-16)



위의 삽화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Where the Wild Things Are(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주인공 맥스(Max)가 괴물들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용과 만나는 장면이다. 맥스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도 맥스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맥스에 몰입된 출발어 독자 또한 이 삽화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참고로, 일부 평론가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괴물들, 특히 용의 존재가 너무 무서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도착어 텍스트 독자는 삽화를 보며 출발어 텍스트 독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온전히 느끼기 힘들다. 수용자 반응 층위의 등가 구현이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도착어 문화권의 독자는 두려움이 아닌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반응 층위에서의 상이성은 출발어 텍스트 수용자와 도착어 텍스

13) 물론 치아의 모양을 아동이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출발어 독자에 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론 능력을 요한다.

14) 아동이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중 독자층’ 개념으로 본다면, 적어도 책을 읽어 주는 성인에게는 혼란을 안겨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설명의 부담을 지운다.

트 수용자의 공현존(copresence)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한글 문화권과 영어 문화권의 용에 대한 문화적인 암시는 매우 다르다. 한글 문화권에서는 용이 주로 은혜 깊은 하늘의 존재로서 신성화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반면 서양의 용은 지하에 속하는 파괴적인 악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다(신광철 2002: 119). 예를 들어 <요한 묵시록>에 나타나는 용은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악마로 뱀과 동일시되어 사탄 혹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sup>15)</sup> 구약성서에서도 용은 악의 상징이고 정복의 대상이다.<sup>16)</sup> 반면 한글 문화권에서의 용은 신령스러운 영물로 인간 누구나 위대함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 신격화된 동물이다(윤열수 2002: 71-72).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용은 국가와 국가 권력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며, 미륵신앙에서는 주로 민중들이 고단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자의 상징이다(신월균 2002: 263-264). 참고로 다른 여러 괴물들<sup>17)</sup> 또한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두려운 존재로 취급되지만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괴물 또는 도깨비들은 밝음과 어두움의 중간, 인간과 귀의 세계의 중간, 성과 속의 중간에 위치한 양면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상징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이인식 2002: 145). 이와 같이 상징의 상이함으로 인해 문화적 암시에 있어 격차가 심하게 존재할 경우,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출발어 텍스트 독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출발어 독자가 공유하기 힘들다.

상기를 통해 삽화의 현지화는 이코노텍스트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할 때

15)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 하였다.<요한 묵시록> 12장 3-4절)

16)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시편> 74장 13절)

17)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괴물들의 기초가 된 고블린(goblin), 오거(ogre), 트롤(troll) 모두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어 자신의 2세를 만드는 등 추하고 교활한 존재로 그려진다. 특히 책표지에 나오는 납작한 코의 손톱이 날카로운 괴물은 고블린을 기초로 그려졌으며 가장 더럽고 해로운 존재의 하나로 손꼽히며 인간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저능아를 출산케 하는 등 재앙을 몰고 온다(이인식 2002: 116).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지화 시도가 없는 경우 텍스트로서의 완전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의 등가 반응 또한 구하기 힘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이티넨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림책에 있어 삽화는 작가가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삽화 번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Oittinen 2000: 100-101).

#### 4. 결론

어린이 그림책의 번역은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인 작업이다. 어린이의 말과 귀와 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도착어가 소리 내어 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뿐 아니라 글과 삽화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 그림책 번역과 관련한 여러 흥미로운 주제가 있지만 본고는 많은 번역이 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삽화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의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어린이 그림책의 이코노텍스트적 특수성을 논증하려 노력했다. 어린이 그림책이라는 하나의 아동문학 장르에 있어 글과 삽화의 관계, 상호 작용을 통한 텍스트 구성 및 메시지 전달 기능을 기술했다. 특히 글과 삽화라는 독립적 이자 상호보완성을 가진 요소들이 활발하게 서로 뒷받침하고 작용을 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형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자의 반응을 구한다는 점을 이코노텍스트라는 틀 내에서 이해하고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틀 내에서 번역 행위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을 논증했다.

둘째, 삽화를 현지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삽화의 현지화가 어린이 그림책 번역에 있어 이코노텍스트로서의 완전성 및 등가 달성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용자의 가독성과 효과 차원의 등가 차원에서 실제 삽화 번역에 기초하여 논의를 다루었다. 글이 번역되듯 삽화 또한 번역된 글과의 새로운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적 암시에 따라 독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삽화 현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번역사는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의 언어 및 문화적 지식 격차를 좁히

고 도착어 문화 및 언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조절을 통해 도착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반응 층위의 등가 구현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삽화의 현지화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삽화 이외에도 문장부호, 문자의 크기, 대문자 등 또한 주요한 시각적 장치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문장부호의 사용을 통해 리듬을 조절할 수 있으며, 대문자 사용을 통해 강조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전체의 틀에서 보면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또한, 연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핀란드 번역본의 경우와 같은 적극적 현지화의 예를 제시하지 못하고 삽화 내의 텍스트 번역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필자의 부족함이지만,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번역학 연구에 있어 어린이 그림책의 이코노텍스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요섭 옮김 (1996) 『아동문학론』, 서울: 교학연구사. [Smith, L. H. (1991) *The Unreluctant Years: A Critical Approach to Children's Literature*]
- 김서정 옮김 (2001)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2)』, 서울: 시공주니어. [Nodelman, P. (1996) *The Pleasure of Children's Literature*]
- 박일우 (1995) 『글과 그림, 문화와 기호』, 서울: 문학과지성사.
- 성승은 (2011) 「번역서와 비번역서의 문장 및 절의 길이 연구: 아동 대상 번역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75-108.
- 신명호 (1994) 『그림의 세계』, 서울: 계명사.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연구』 6(1): 65-98.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 윤열수 (2002) 『우리 문화 속에 나타난 용신앙』, 서울: 도서출판 민속원.

- 이상금·옴김 (1990) 『어린이와 그림책』, 서울: 샘터사. [松居直 (1990) 『繪本"E  
物語るよろこび』]
- 이인식 (2002) 『신화상동물 백과사전 1』, 서울: 생각의 나무.
- 정병규 (2004)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새롭게 읽는다」, 편집부(편저) 『북페덱』  
(158-182),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현은자 외 (2004) 『그림책의 그림일기』, 서울: 마루벌.
- 현은자·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1)』, 경기도: 사계절출판사.
- Chesterman, A., Salvador, N. G., & Gambier, Y. (2000) *Translation in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 Horning, T. K. (1997) *From Cover to Cover: Evaluating and Reviewing  
Children's Books*, New York: HarperCollins.
- Lewis, D. (2001) *Reading Contemporary Picturebooks: Picturing Text*, London:  
Routledge.
- Macaulay, R. (1994) *The social act: Language and its uses*, New York:  
Oxford UP.
- Nida, E. A., & Taber, C. 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Nikolajeva, M. (2006) *How Picturebooks Work*, London: Routledge.
- Neubert, A., & Shreve, G. M.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The Kent State  
UP.
- Oittinen, R. (1997) *Liisa, Liisa ja Alice*, Tampere: Tampere UP.
- Oittinen, R. (2000)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Garland.
- Tabbert, R. (2002) 'Approaches to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Target* 14(2): 303-351.
- Venuti, L.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삽화 발췌 자료>

- Artell, M. (2003) *Petite Rouge*, New York: Penguin Putnam.
- 한강 옴김 (2003) 『절대로 잡아먹히지 않는 빨간 모자 이야기』, 서울: 문학동네

어린이.

Curtis, J. L. (2002) *I'm Gonna Like Me*, New York: HarperCollins.

서애경 옮김 (2005) 『나는 내가 좋아』, 서울: 중앙출판사.

Carroll, L. (1865/199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New York: Bantam Books.

Gutiérrez, J. (Trans.) (1927) *Alicia en el pais de las maravillas* (Illust. L. Anglada), Barcelona: Juventud.

Dyer, W. (2005) *Incredible You!*, London: Hay House.

정미영 옮김 (2006) 『나는 할 수 있어!』, 서울: 한언.

Gomi, T. (1996) *The Crocodile and the Dentist*, New York: Scholastic.

이종화 옮김 (2003)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 서울: 비룡소.

Sendak, M. (1963/2002) *Where the Wild Things Are*, New York: Harper Collins.

강무홍 옮김 (2002) 『괴물들이 사는 나라』, 서울: 시공주니어.

Wildsmith, B. (1986) *Goat's Trail*, New York: Knopf Books.

김정욱 옮김 (1996) 『산양을 따라갔어요』, 서울: 비룡소.

[Abstract]

**Translation of Children's Picture Book as Iconotext:  
Focusing on the Domestication of Illustrations**

Kim, Do Hu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ng children's picture book is a complex and dynamic activity, as it deals with a non-conventional text type which involves both words and graphic devices. In other words, children's picture book is a type of iconotext in which two individual text components – words and illustrations – complement and react with each other and form a new and dynamic text. Of course, this exceptional nature of the genre provides dynamism as well as hardship to the process of translation, as the target text will have to re-balance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of the two major text constituents.

This paper purports to expand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picture book by examining it in the framework of iconotext. It will explore the multi-dimensional and multi-faceted relations between words and illustrations and examine how such devices contribute to forming a completed text and to delivering message in an effective manner.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conocity of the children's picture book, this paper then seeks to stress the need to adjust or domesticate source text illustratio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Examples of domesticated illustrations will be presented and their roles and contributions will be studied. In addition, non-domesticated illustrations – but which should have been domesticated indeed – will also be presented, so as to show the non-equivalence and incompleteness of text caused by lack of efforts to re-balance the target words and illustrations.

It is of notable interest that only the words have received attention in the translation practice as well as in the translation studies. The author hopes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riggering further discussion on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picture book from the iconotext perspective.

▶ Key Words: children's picture book, domestication, equivalence, iconotext, illustration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kdh8377@pufs.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학(번역 문체론)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